

남녀 중학생의 정서적 · 인지적 특성,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송 경 희 송 주 현 백 지 현 이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서적 특성(분노, 위축, 공감) 및 인지적 특성(적대적 귀인편향, 내적 귀인성향),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가해행동, 피해경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남녀 집단별로 먼저 살펴 보았으며, 가해집단 또는 피해집단과 가해·피해 중복집단을 변별하는 변인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중학교 1, 2학년 696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한 결과 첫째, 분노는 남녀 모두의 가해행동을, 남학생의 피해경험을 예측하였으며, 위축성향은 남녀 모두의 피해경험을 예측하였다. 둘째, 적대적 귀인성향은 남녀 모두의 가해행동을 예측하였으며, 여학생의 피해경험도 예측하였다. 긍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성향은 남학생의 피해경험과 여학생의 가해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남녀의 가해행동, 피해경험 모두를 예측하는 변인이었으며, 아버지의 방임적 양육행동은 여학생의 가해행동을,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은 남학생의 가해행동을 예측하였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피해경험을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중복집단을 변별하는 변인으로는 남학생의 경우 위축, 긍정적 ·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성향이, 여학생의 경우 위축, 공감,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의하였다. 피해집단과 가해·피해 중복집단은 여학생들의 경우에만 분노표현의 정도에 따라 유의하게 구분되었다.

주요어: 또래괴롭힘, 정서적 특성, 인지적 특성, 부모 양육행동, 성차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행동규범을 습득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받으며,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 성인이 되기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또래는 아동기와 비교하여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또래들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한 학

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으로 정의되는 또래괴롭힘은 직접적인 폭력(능동적 공격: 구타, 폭행)과 간접적인 폭력(수동적 공격: 소외, 심리적 배제)을 모두 포함하며(곽금주, 1999),

* 교신저자: 이승연, E-mail: slee1@ewha.ac.kr

청소년들의 적응과 발달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연구에 따르면, 또래괴롭힘의 가해자들은 우울이나 충동성의 증가(Bosworth, Espelage, & Simon, 1999)를 보이고, 자살사고를 흔히 경험하며(Cleary, 2000), 비행, 범죄, 약물중독에 대하여 더욱 높은 위험성을 지닌다(Loeber & Dishion, 1983). 미국의 학교총기사고 가해자들 중 78%가 자살사고와 자살시도의 경험이 있다는 분석은 주목할 만하다(Vossekuil, Fein, Reddy, Borum, & Modzelesk, 2002; Espelage & Swearer, 2003에서 재인용). 마찬가지로 또래괴롭힘의 피해자들에게서도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을 관찰할 수 있다. 또래괴롭힘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불안, 분노, 우울감, 자기 파괴적 충동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Flannery, Wester, & Singer, 2004). 또한 여러 신체적 증상과 함께, 낮은 자존감과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및 중도탈락의 가능성 또한 높다(Boivin, Hymel, & Bukowski, 1995; Guerin & Hennesy, 2002; Kochenderfer & Ladd, 1996; Olweus, 1993).

그러나 또래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분하는 연구들은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청소년들이나 방관자 등 또래괴롭힘의 집단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특히 또래괴롭힘 관련행동들을 가해와 피해의 연속선상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Espelage & Swearer, 2003).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또래괴롭힘 가해, 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중복집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예, 김혜원, 이해경, 2000; 노경선, 심희옥, 2004; 박보경, 한세영, 최미경, 도현심, 2004).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덕희(2007)의 연구에서 전체

연구 대상자 가운데 76.9%가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가해경험만 있는 청소년은 5.8%, 피해경험만 있는 청소년은 18.4%, 중복경험 청소년은 52.7%로 나타나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김희화(2001)의 연구에서는 가해나 피해 중 한 가지만 경험하는 집단과 중복경험집단 간에 학업 성취, 학교생활 부적응 등과 같은 학교생활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해경과 김혜원(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애착, 자존감, 주변의 심리적 지지 등에서 가해·피해 중복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가해와 피해집단을 비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해, 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중복집단이 가해 또는 피해집단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해와 피해를 상호배타적인 집단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져 온 변인들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들과 청소년이 소속된 근접환경 즉, 가족이나 학교의 특성 등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는 특히 우울이나 불안, 분노, 공격성, 공감 같은 정서적 변인들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Espelage & Swearer, 2003). 분노는 또래괴롭힘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공격성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왔지만(Espelage & Swearer, 2003; Wilkowski & Robinson, 2008), 국내에서는 분노(조성호, 2000)보다는 공격성(예, 김혜리, 이숙희, 2005; 김혜원, 이해경, 2000; 민영숙, 박원모, 천성문, 이영순, 2007; 박지연, 이은희, 2008; 이은주, 2003)에 관

한 연구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서적 위축 또는 위축성향의 아동들이 보이기 쉬운 수동적이거나 비주장적인 행동 특성은 또래괴롭힘 피해자들의 특성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음에도(Haynie et al., 2001; Olweus, 1993; Schwartz, Dodge, & Coie, 1993), 위축이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집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적이 없다.

한편, 대다수의 또래괴롭힘 예방 프로그램들이 공감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하여(윤성우, 이영호, 2007; Espelage & Swearer, 2003), 또래괴롭힘 현상에서 공감의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다. 즉, 가해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감능력이 더 낮다고 보고한 연구들(곽금주, 1999; 김혜원, 이해경, 2000; 양혜영 등, 2008; Lee & Hoaken, 2007; Olweus, 1993)도 있지만, 남녀 모두에게서 가해경험과 공감능력간의 상관성이 매우 낮음(Endresen & Olweus, 2001; Espelage & Swearer, 2003에서 재인용)을 밝힌 연구도 있기에, 또래괴롭힘 현상에서 공감능력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래괴롭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인지적 특성으로 대표적인 것은 적대적 귀인편향이다. 공격적인 아동들은 모호한 사회적 신호뿐 아니라 비교적 명확한 사회적 신호도 적대적으로 해석하며, 그로 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할 때도 보다 공격적인 방식을 택한다(Dodge, 2006). 사회적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적대적 귀인편향은 공격적 행동과 관련하여 주로 가해학생들의 특징으로 연구되어져 왔지만(예, Castro, Veerman, Koops, Bosch, & Monshouwer, 2002),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결과 적대적 귀인편향을 더욱 심한 정도로 갖게 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Burgess, Wojslawowicz, Rubin, Rose-Krasnor, & Booth-LaForce, 2006;

Lee & Hoaken, 2007), 또래괴롭힘의 피해학생들이나 가해·피해 중복경험집단들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역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래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인지적 특성은 내적 귀인성향이다. 내적 귀인성향은 어떤 사건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경험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 같은 내적 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 생각하는 성향으로 최윤자와 김아영(2003)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괴롭힘 피해와 부적으로 상관성이 있었다.

한편,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들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가 또래괴롭힘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에 의해 밝혀졌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은 그 중 대표적인 변인이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제재적인 양육행동은 또래괴롭힘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들 중 하나인 신체적,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되며(Casas et al., 2006), 부모의 거부·제재적 양육을 경험해온 아동은 또래 집단 속에서 부적절하고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상호작용을 한다(Rubin, Lemare, & Lollis, 1990). 부모의 거부·제재적인 양육방식으로 인해 유치원 때 경험한 가혹하고 처벌적인 가정환경이 3, 4학년 남학생들의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는 연구결과(Schwartz, Dodge, Pettit, & Bates, 1997)도 있다.

한편, 냉정하고 정서적으로 격리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학교에서의 또래괴롭힘 현상에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기 쉽다(Eisenbraun, 2007). 반면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적대적 성향 및 공격적인 행동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Gomez & Gomez, 2000).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전반적인 또래관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또래괴롭힘의 보호요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내의 또래괴롭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주

로 가해행동(예, 김소명, 현명호, 2004; 박민정, 최보가, 2004; 아영아, 정원철, 2007), 혹은 피해경험(예, 안재진, 이경남, 2002; 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2001)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가해·피해 중복경험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Haynie et al., 2001).

이상에서,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관련행동들이 가해와 피해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가정 하에, 또래 괴롭힘을 구성하는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었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는 변인들, 즉,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 중 분노, 위축 및 공감, 인지적 특성 중 적대적 귀인편향과 내적 귀인성향,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가해행동 및 피해경험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어서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중복집단을 가해나 피해집단으로부터 변별해 줄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에 더하여, 공격적 행동에서의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예, Crick & Grotpeter, 1995; Underwood, 2003; Trembly, Hartup, & Archer, 2005), 또래괴롭힘 행동에 있어서도 성차가 나타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다.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더 자주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을 하며, 남학생들은 훨씬 직접적인 방식으로, 여학생들은 더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해행동을 한다(Fekkes, Pijpers, & Verloove-Vanhorick, 2005). 그러나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관련해서 유의한 성차는 보고되지 않는다(Fekkes et al., 2005).

반면에 국내 연구들에서는 성별에 따른 집단 괴롭힘의 양상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이춘재와 박금주(2000)의 초등학교,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가해와 피해경험 모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에 의해 더 많이 보고되었지만, 이해

경과 김혜원(2001)의 초등학교 대상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이 가해와 피해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또한, 또래괴롭힘의 위험요인, 보호요인과 관련하여 남녀 간 성차를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Schwartz, Dodge, Pettit, & Bates, 2000).

따라서 또래괴롭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또래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의 측면에서, 그리고 가해, 피해, 가해·피해 중복집단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검토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인들에서의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래괴롭힘 현상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이나 가정환경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면, 이는 보다 효과적인 또래괴롭힘 예방 및 개입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한편, 또래 관계에서 공격성이나 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연령은 10-14세이며(Olweus, 1991), 또래괴롭힘은 청소년기 초기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고등학교 시기 동안 감소한다고 알려져 왔다(Espelage & Swearer, 2003).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입 노력 역시 청소년기 초기에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청소년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과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성차가 있을 것인가?
2.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을 예측하는 변인들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3. 가해집단, 피해집단을 가해·피해 중복집단과 변별해주는 변인들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방 법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4개 중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716명(남학생 334명(46.6%), 여학생 382명(53.4%))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13.61($SD=.559$)세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한 20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중학교 1학년 남학생 71명(10.2%), 여학생 89명(12.8%) 총160명(23%)과 2학년 남학생 255명(36.6%), 여학생 281명(40.4%) 총 536명(77%)의 자료를 합쳐 총 696명(남학생 326명(46.8%), 여학생 370명(53.2%))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1) 또래괴롭힘 척도

또래괴롭힘의 가해 정도와 피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춘재와 박금주(2000)의 집단 괴롭힘의 정의에 해당하는 가해행동, 피해경험 각 6개 행동항목들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의 경험을 묻는 이해경과 김혜원(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이 각 6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1점: 전혀 없었다 - 5점: 거의 매일 있었다)로 평정된다. 이 척도의 최소점수는 각 문항 당 1점씩 총 6점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7점 이상의 경우 또래괴롭힘의 가해와 피해를 각각 경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해경과 김혜원(2001)의 연구에서 집단 괴롭힘 가해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83, 피해척도는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가해행동 척도는 .75, 피해 경험 척도는 .82로 나타났다.

2) 분노 척도

청소년의 특성분노, 분노표현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88)의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를 번안, 수정한 전 검구(1996)의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XI-K) 중 상태분노를 측정하는 10문항을 제외한 손주영(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손주영(2007)의 척도는 특성분노 10문항과 분노표현방식(분노억제, 분노조절, 분노표출)을 측정하는 24문항, 총 34문항을 사용한 것이며,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된다. 손주영(2007)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특성분노 .81, 분노억제 .74, 분노표출 .64, 분노통제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 .83, 분노억제 .75, 분노표출 .69, 분노통제 .75로 나타났다.

3) 위축 척도

청소년이 생활에서 느끼는 위축 성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1978)의 아동행동에 관한 질문지(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와 Quay(1972)의 정서적 부적응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김영숙(1988)이 제작한 아동용 설문지를 원지영(1998)이 일부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5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 중 위축행동은 10문항이며,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된다. 원지영(1998)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4) 공감 척도

청소년이 평소에 느끼는 공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진영(1988)이 번안하고 송기종(1998)이 수정한 Bryant(1982)의 공감능력 검사(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를 사용하였다. 이는 또래괴롭힘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써 기쁨, 슬픔, 불안, 심적 부담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기중(1998)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80으로 나타났다.

5) 적대적 귀인편향 척도

청소년의 적대적 귀인편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niering과 Rapee(2002)의 아동기 자동적 사고 척도(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s: CATS)를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2002)이 번안한 한국판 아동기 자동적 사고 척도(K-CATS) 중 '적대적 인지'로 분류된 6문항과 한국판 타당화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원척도의 4개 문항을 번안하여 총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원척도의 4개 문항을 추가로 번안하여 사용한 것은 문경주 등(2002)의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으로 분석되거나 누락된 문항이라 해도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한 적대적 귀인편향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Schniering과 Rapee(2002)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85,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6) 귀인성향 척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청소년들의 귀인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Weinstein(1980)이 사용한 사건 가발성(可發性)에 대한 질문지를 임영실(2003)이 수정한 귀인성향검사 질문지(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임영실(2004)은 긍정적 사건 10가지와 부정적 사건 10가지를 무선적으로 배열하고, 학생들의 내적 귀인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문항마다 그 사건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0에서 100까지의 숫자

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그 사건에 대해 내적으로 귀인하는 성향이 높음을 나타내며, 긍정적 사건에 대한 10문항과 부정적 사건에 대한 10문항,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영실(2004)이 실시한 귀인성향 질문지의 Cronbach α 계수는 긍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귀인 .77,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 .7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6, .82로 나타났다.

7) 부모 양육행동 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총 80문항으로 이루어진 박영애(1995)의 아동용 양육행동 검사를 김문정(2003)이 수정하여 '거부·제재', '허용·방임', '온정·수용' 요인별 각 10문항씩 총 30문항을 선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된다. 김문정(2003)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Cronbach α 계수는 거부·제재 .68, 허용·방임 .82, 온정·수용 .87이었다. 본 연구의 요인별 Cronbach α 계수는 아버지 거부·제재 .85, 아버지 허용·방임 .74, 아버지 온정·수용 .90, 어머니 거부·제재 .86, 어머니 허용·방임 .71, 어머니 온정·수용 .90으로 나타났다.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지역 4개 중학교 1, 2학년층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회수된 설문자료는 SPSS 1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들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Cronbach α)를 산출하였으며, 기술통계, 상관분석, Fisher's Z 검증, t검증,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가해행동 및 피해경험과 관련변인들 간의 단순상관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변인들 즉,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 인지적 특성,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Pearson 단순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우선 가해행동과 피해경험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r=.48, p<.01$), 또래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청소년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으로서 특성분노($r=.33, p<.01, r=.22, p<.01$)와 분노표현($r=.35, p<.01, r=.33, p<.01$), 위축($r=.22, p<.01, r=.42, p<.01$) 모두 가해, 피해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

적 특성 변인들 간의 상관도 유의했는데, 특성분노와 분노표현($r=.55, p<.01$), 그리고 위축과 분노표현($r=.37, p<.01$)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감의 경우 여러 변인들과 정적 상관을 보이긴 하지만, 그 크기는 매우 경미하였다.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으로서의 적대적 귀인편향은 가해($r=.33, p<.01$)와 피해($r=.34, p<.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가해 청소년 뿐 아니라 피해 청소년에게서도 또래 관계 속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관련하여 인지적 왜곡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적대적 귀인편향은 정서적 변인들, 즉 특성분노($r=.48, p<.01$), 분노표현($r=.48, p<.01$), 위축($r=.33,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이 정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긍정적·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성향은 가해

표 1. 또래괴롭힘 가해행동, 피해경험과 청소년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48**	1													
3	.33**	.22**	1												
4	.35**	.33**	.55**	1											
5	.22**	.42**	.16**	.37**	1										
6	.05	.07	.17**	.02	.15**	1									
7	.33**	.34**	.48**	.48**	.33**	.16**	1								
8	-.22**	-.29**	-.01	-.13**	-.29**	-.02	-.07	1							
9	-.08*	-.11**	.07	.02	-.04	.02	-.03	.61**	1						
10	.32**	.34**	.15**	.23**	.25**	.08*	.14**	-.25**	-.08*	1					
11	.12**	.06	.05	.07	.17**	.07	.15**	-.05	-.10*	-.08*	1				
12	-.15**	-.15**	-.05	-.21**	-.17**	.08*	-.04	.20**	.06	-.49**	.07	1			
13	.26**	.28**	.20**	.26**	.27**	.07	.22**	-.14**	.03	.63**	.09*	-.33**	1		
14	.17**	.10**	.02	.10*	.17**	.03	.10*	-.06	-.12**	.12**	.65**	-.01	-.03	1	
15	-.13**	-.09*	-.10**	-.24**	-.17**	.08*	-.12**	.15**	.03	-.34**	.01	.69**	-.56**	.05	1

* $p<.05$ ** $p<.01$ *** $p<.001$

1.가해행동, 2.피해경험, 3.특성분노, 4.분노표현, 5.위축, 6.공감, 7.적대적 귀인편향, 8.긍정사건에대한내적귀인, 9.부정사건에대한내적귀인, 10.아버지-거부·제제, 11.아버지-허용·방임, 12.아버지-온정·수용, 13.어머니-거부·제제, 14.어머니-허용·방임, 15.어머니-온정·수용

행동, 피해경험과 경미하지만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가해($r=.32, p<.01, r=.26, p<.01$), 피해($r=.34, p<.01, r=.28, p<.01$)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모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가해행동, 피해 경험 모두와 정적 상관,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부적상관을 보였지만, 상관계수는 크지 않았다.

변인들 간 상관계수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Fisher's Z 검증을 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대적 귀인편향과 위축 간에 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점(남학생 $r'=.53$, 여학생 $r'=.31, t=2.94, p<.01$)을 제외하고는 다른 변수들 간 상관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없었다.

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또래괴롭힘 가해행동($t=5.10, p<.01$)과 피해경험($t=4.52, p<.01$)은 모두 남학생에게서 더 높게 보고되었다. 공감($t=-5.84, p<.01$)은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대적 귀인편향($t=2.03, p<.05$)은 남학생에게서, 긍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성향($t=-5.21, p<.01$)과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성향($t=-3.45, p<.01$)은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거부·제재적 양육($t=3.33, p<.01$)은 남학생에게서, 아버지의 허용·방임적 양육($t=-2.80, p<.01$)은 여학생에게서 유의하게 더 많이 보고되었다.

성별에 따른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에 대한 청소년의 정서·인지적 특성과 부모 양육행동의 설명력

1) 남녀 집단에서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청소년의 특성과 부모 양육행동

또래괴롭힘 관련변인들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

청소년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들과 부모의 양육

표 2.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현상과 관련된 변인들의 성차 검증

	변인	남	여	$t(df)$	p
또래괴롭힘	가해행동	10.34(3.50)	9.07(3.00)	5.10(643.74)	.000
	피해경험	10.49(3.96)	9.21(3.45)	4.52(648.72)	.000
정서적특성	특성분노	21.09(5.71)	21.12(5.65)	-.08(694)	.938
	분노표현	29.10(6.86)	28.97(7.20)	.25(694)	.803
	위축	14.94(4.05)	14.46(3.78)	1.61(668.26)	.108
	공감	46.70(11.58)	51.95(12.08)	-5.84(694)	.000
	적대적 귀인편향	13.34(7.52)	13.22(7.02)	2.03(694)	.043
인지적특성	긍정 사건에 대한 내적귀인	54.09(20.54)	61.89(18.77)	-5.21(662.95)	.000
	부정 사건에 대한 내적귀인	41.75(18.90)	46.79(19.57)	-3.45(694)	.001
양육행동	아버지 거부·제재	19.10(5.82)	17.60(6.10)	3.33(694)	.001
	아버지 허용·방임	18.37(4.71)	19.40(4.94)	-2.80(694)	.005
	아버지 온정·수용	26.97(6.53)	26.59(7.26)	.74(693.71)	.459
	어머니 거부·제재	19.81(6.20)	19.11(6.42)	1.45(694)	.147
	어머니 허용·방임	17.76(4.29)	18.29(4.41)	-1.59(694)	.113
	어머니 온정·수용	27.98(6.50)	28.32(7.08)	-.66(692.79)	.511

주: Mean(SD)

표 3.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 가해행동 예측변인의 단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β	t	유의확률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β	t	유의확률
		B	SE						B	SE			
남학생	특성분노	.14	.04	.22	3.88	.000	여학생	아버지 거부·제재	.11	.02	.23	4.80	.000
	아버지 거부·제재	.13	.03	.21	4.00	.000		분노표현	.08	.02	.19	3.34	.001
	어머니 허용·방임	.11	.04	.13	2.55	.011		적대적 귀인편향	.08	.02	.18	3.33	.001
	적대적 귀인편향	.06	.03	.14	2.39	.018		아버지 허용·방임	.07	.03	.12	2.66	.008
	(constant)	2.24	1.11		2.01	.045		특성분노	.06	.03	.12	2.19	.029
								긍정사건 내적귀인	-.02	.01	-.13	-2.95	.003
						(constant)	2.35	1.00		2.35	.019		
$R^2 = .18$ $F(4,321)=17.588$						$R^2 = .32$ $F(6,363)=28.253$							

행동을 변인으로 가해행동에 대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특성분노, 아버지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적대적 귀인편향이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변인들을 포함하는 모델은 $F(4,321)=17.588$, $p=.000$ 으로 유의하였고, 이들이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변량은 약 18%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듯이, 남학생의 경우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적대적 귀인편향을 많이 보일수록 가해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을 사용할 때, 어머니가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사용할 때 가해행동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분노표현, 적대적 귀인편향, 아버지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특성분노, 긍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귀인이 가해행동에 대한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

났는데, 이 변인들을 포함하는 모델은 $F(6,363)=28.253$, $p=.000$ 으로 유의하였고, 총 설명변량은 약 32%로 나타났다.

표 3에 제시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의 정서특성 변인 중에서 특성분노가 가장 강력한 설명변인이었던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은 특성분노보다는 분노표현이 가해를 더 강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적대적 귀인편향을 보일수록, 긍정적 사건들에 대해 내적 귀인을 덜 할수록 여학생들은 가해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거부·제재적 양육을 할수록 가해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학생 집단과는 반대로 아버지의 허용·방임이 가해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2) 남녀 집단에서 피해경험을 설명하는 청소년의 특성과 부모 양육행동

청소년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들과 부모의 양육

표 4.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예측변인의 단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비표준화		β	t	유의 확 률	독립변인	비표준화		β	t	유의 확 률
		계수						계수				
		B	SE					B	SE			
남 학 생	위축	.27	.05	.28	5.35	.000	위축	.25	.04	.28	5.73	.000
	아버지 거부·제재	.14	.03	.20	4.09	.000	적대적 귀인편향	.13	.02	.26	5.47	.000
	분노표현	.11	.03	.20	4.08	.000	아버지 거부·제재	.14	.03	.25	5.11	.000
	긍정사건 내적귀인	-.03	.01	-.17	-3.34	.001	어머니 온정·수용	.07	.02	.14	2.89	.004
	(constant)	2.24	1.32		1.69	.091	(constant)	-.56	1.18		-.48	.634
$R^2 = .32$ $F(4,321)=38.342$						$R^2 = .26$ $F(4,365)=32.126$						

행동을 변인으로 피해경험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위축, 아버지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분노표현, 긍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성향이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변인들을 포함하는 모델은 $F(4,321)=38.342$, $p=.000$ 으로 유의하였고, 이들이 피해경험을 설명하는 변량은 약 32%로 나타났다.

표 4에 제시되어 있듯이, 남학생의 위축성향이 높을 때, 그리고 분노표현이 많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사용할 때 피해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긍정적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을 많이 할수록 피해경험이 낮아서, 남학생의 경우 긍정적 결과에 대해 자신에게 귀인하는 것이 또래괴롭힘 피해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위축, 적대적 귀인편향, 아버지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피해경험에 대한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변인들을 포함하는 모델은 $F(4,365)=32.126$, $p=.000$ 로 유의하였고, 총 설명변량은 약 26%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위축

이 가장 강력한 피해 설명변인이었고, 적대적 귀인편향을 많이 보일수록 피해경험을 높게 보고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사용할수록, 어머니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사용할수록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가해, 피해, 가해·피해 중복집단을 변별하는 변인

가해, 피해를 가해·피해 중복집단과 구분하는 청소년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과 부모의 양육행동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남녀 집단별로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중복집단, 피해집단과 가해·피해 중복집단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하점수 6점을 기준으로 가해, 피해집단으로 나누었던 기존 연구들에서, ‘거의 없었다(2점)’에 응답을 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마치 또래괴롭힘에 빈번하게 노출된 것으로 과대 추정될 염려가 있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앙치(median) 9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즉, 가해만 경험한 집단은 가해척도 중앙치 9점 이상, 피해척

표 5. 청소년의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중복집단에 대한 logistic 회귀분석

독립변인	남				여				
	β	SE	Wald statistic	Odds Ratio	β	SE	Wald statistic	Odds Ratio	
정서적 특성	특성분노	-.035	.078	.208	.965	.092	.052	3.166+	1.096
	분노표현	-.049	.073	.448	.952	-.050	.048	1.079	.952
	위축	-.345	.142	5.887*	.708	-.175	.077	5.107*	.840
	공감	-.045	.042	1.113	.956	.044	.023	3.798*	1.045
인지적 특성	적대적 귀인편향	.003	.061	.003	1.003	-.067	.051	1.710	.936
	긍정사건 내적귀인	.083	.029	8.321*	1.087	.016	.018	.817	1.016
	부정사건 내적귀인	-.062	.029	4.387*	.940	-.020	.017	1.317	.980
아버지 양육	거부·제재	.084	.093	.814	1.088	-.022	.073	.091	.978
	허용·방임	.082	.106	.604	1.086	-.004	.076	.003	.996
	온정·수용	-.140	.080	3.043+	.870	.120	.066	3.328+	1.128
어머니 양육	거부·제재	-.188	.099	3.578+	.829	-.048	.078	.369	.953
	허용·방임	-.203	.130	2.444	.816	.026	.080	.109	1.027
	온정·수용	-.097	.085	1.298	.907	-.180	.078	5.279*	.835
Constant	14.26	4.746	9.239*		1.701	3.139	.294		

+ $p < .10$ * $p < .05$ Dummy 가해·피해 중복=0, 가해=1

도는 전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을 때를 고려하여 6점 이하, 피해만 경험한 집단은 피해척도 중앙치 9 점 이상, 가해척도는 6점 이하, 가해·피해 중복집단의 경우는 가해척도와 피해척도 모두 중앙치 9점 이상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또래괴롭힘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남자 137명(19.7%), 여자 205명(29.5%)으로 총 342명(49.1%) 이었다. 가해만 경험한 청소년들은 남자 18명(2.6%), 여자 26명(3.7%)으로 총 44명(6.3%), 피해만 경험한 청소년들은 남자 8명(1.1%), 여자 15명(2.2%)으로 총 23명(3.3%), 가해·피해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들은 남자 163명(23.4%), 여자 124명(17.8%), 총287명(41.2%)으로 나타났다.

1)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중복집단의 구분

남학생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은 유의하였고($\chi^2=49.768$, $df=13$, $p=.000$), 전체 모델의 설명력은 50.4%(Nagelkerke $R^2=.504$)였으며,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중복집단이 정확히 분류된 정도는

92.8%로 나타났다(표 5). 분석결과 남학생들의 경우 긍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귀인($\beta=.083$, $p=.004$)을 할수록 가해·피해를 동시에 보이기보다는 가해 행동만 보이기 쉬우며,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귀인($\beta=-.062$, $p=.036$)을 할수록, 그리고 위축성향($\beta=-.345$, $p=.015$)이 높을수록 가해가 아닌 가해·피해를 동시에 보이기 쉽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모델은 유의하였고($\chi^2=27.546$, $df=13$, $p=.010$), 전체모델의 설명력은 27.8%(Nigelkerke $R^2=.278$)이었으며,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중복집단이 정확히 분류된 정도는 84.0%로 나타났다(표 5). 분석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가 온정·수용적 양육($\beta=-.18$, $p=.022$)을 할수록, 청소년의 위축($\beta=-.175$, $p=.024$) 수준이 높을수록 가해보다 가해·피해를 경험하기 더 쉽다. 한편, 공감($\beta=.044$, $p=.051$)이 높을수록 가해·피해보다는 가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피해집단과 가해·피해 중복집단의 구분

표 6. 여학생의 피해집단과 가해·피해 중복집단에 대한 logistic 회귀분석

독립변인		β	SE	Wald statistic	Odds Ratio
정서적 특성	특성분노	-.040	.097	.173	.961
	분노표현	-.198	.079	6.270*	.821
	위축	.083	.099	.701	1.086
	공감	.032	.030	1.131	1.033
인지적 특성	적대적 귀인편향	.024	.065	.134	1.024
	긍정사건 내적귀인	.019	.025	.567	1.019
	부정사건 내적귀인	-.052	.028	3.567+	.949
아버지 양육	거부·제재	-.080	.092	.755	.923
	허용·방임	-.048	.110	.189	.953
	온정·수용	-.017	.078	.048	.983
어머니 양육	거부·제재	-.007	.106	.004	.993
	허용·방임	-.229	.122	3.495+	.796
	온정·수용	.015	.098	.022	1.015
Constant		8.749	3.847	5.173+	

+ $p < .10$ * $p < .05$ Dummy 가해·피해 중복=0, 피해=1

남학생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은 유의하지 않았고, 여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하였다($\chi^2=27.066$, $df=13$, $p=.012$).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학생의 경우 전체 모델의 설명력은 35.7% (*Nagelkerke R²=.357*)였으며, 피해집단과 중복집단이 정확히 분류된 정도는 88.5%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피해와 가해·피해를 구분하는 변인으로는 분노표현($\beta = -.198$, $p=.012$)이 있었는데, 분노표현이 높을수록 피해가 아닌 가해·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였거나 기존 연구들에서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던 변인들, 특히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분노, 위축, 공감), 인지적 특성(적대적 귀인편향, 내적 귀인성향)과 부모의 양육행동(거부·제재, 허용·방임, 온정·수용)이 또래 괴롭힘 현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또래괴롭

힘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을 설명하는 관련변인들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가해·피해 모두를 경험하는 중복집단들이 가해집단 또는 피해집단과 어떤 변인들에 있어 차이가 나는지를 남녀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로는 남학생의 경우 특성분노, 아버지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적대적 귀인편향이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분노표현, 적대적 귀인편향, 아버지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특성분노, 긍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이 있었다. 반면, 피해경험을 설명하는 변인들로는 남학생의 경우 위축, 아버지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분노표현, 긍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이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위축, 적대적 귀인편향, 아버지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있었다. 이상에서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을 설명하는 변인들에서 남녀 집단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며, 일부 변인은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을 모두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또래괴롭힘의 집단유형을 구분하였을 때, 긍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을 하는 남학생일수록 가해·피해를 모두 보이기보다는 가해행동만 보이기 쉬우며, 위축성향이 높고 부정적 사건에 대해 내적 귀인을 할수록 가해행동만 보이기보다 가해·피해를 모두 보이기 쉬움을 발견하였다. 한편, 여학생들의 경우, 어머니가 온정·수용적 양육을 할수록, 위축 수준이 높을수록 가해보다 가해·피해 중복경험을 하기 쉽고, 분노표현이 높은 여학생일수록 피해만 경험하기보다 가해·피해를 모두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들을 연구문제에 따라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또래괴롭힘 현상에서 각 변인의 고유한 역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각 변인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 중 분노는 특성분노와 분노표현의 2개 하위척도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특성분노는 남녀 모두에서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한편 분노표현은 여학생들의 경우에만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의 경우 직접적이며 외현적인 공격성이 사회적으로 덜 용인되기 때문에, 분노의 외현적 표현 대신에 비교적 잘 드러나지 않는 관계적 공격성을 선택하기 쉽다는 연구결과(Boyer, 2008)를 고려해 볼 때, 충동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여학생 집단에서 가해행동을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남학생들의 경우 분노표현은 여학생들의 경우와는 반대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노표현이 또래괴롭힘 피해의 결과인지 원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 일부는 또래들의 도발에 반응적 공

격성(reactive aggression)으로 대처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감정적인 격함이 또래들로부터 더 거부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도록 만들었을 수 있다는 연구(Pellegrini, Bartini, & Brooks, 1999)가 있다. 남학생들의 경우에 반응적 공격성이나 통제되지 않은 분노표현이 피해경험의 원인이라면, 여학생들의 경우에 분노표현이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학생들의 경우 분노표현은 피해집단과 가해·피해 중복집단을 변별하는 유일한 변인이었다. 분노표현이 높을수록 중복집단에 속함을 보여준 이 결과는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분노표현이 여학생의 가해행동을 설명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분노와 관련된 위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또래괴롭힘의 가해행동과 관련한 개입에서 남녀 모두 특성분노의 수준을 조절(regulation)할 수 있도록 인지 행동적 치료기법을 사용하여 자기통제나 문제해결 등의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분노표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여학생들의 경우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을, 남학생들의 경우 피해경험을 줄이는데 유용할 것이다.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 중 위축은 남녀 모두의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 연구들(예, 이영선, 이경남, 2004; 이점숙, 유안진, 1999; Erath, Flanagan, & Bierman, 200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위축성향은 남녀 집단 각각에서,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중복집단을 구분하는 변인들 중 하나였으며, 위축성향이 강할수록 가해집단보다는 가해·피해 중복집단에 속함을 보여주었다. 위축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그 상황에 대해 극도로 경계심을 갖게 되고, 그 결과 타인의 공격이나 폭력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특성을 보이므로(Burgess et al, 2006) 또래괴롭힘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정서적 특징인 공감은 남녀 중학생 집단 모두에서 가해행동이나 피해경험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아니었지만, 여학생들의 경우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중복집단을 구분하는 유의한 변인 중 하나였다. 공감수준이 높을수록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집단이기 보다는 가해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연구결과는 가해자들이 정상집단이나 피해집단에 비해 공감능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던 김혜원과 이해경(2000)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후속 연구에 의해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다. 특히, Bryant의 공감척도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에서 비행 집단과 일반집단 사이에 공감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거나(예, Kaplan & Arbuthnot, 1985), 공격성과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는 등 (예, Gonzales, Field, Lasko, LaGreca, & Lahey, 1996) 비일관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감 측정 도구이긴 하지만 심리측정적 속성이 더 우수한 다른 도구의 사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Lovett & Sheffield, 2007). 또한 낮은 수준의 공감과 비행 또는 공격성간의 관련성은 성별이나 지능,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후에는 거의 또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연구들을 고려하여 두 변인간의 관계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Jolliffe & Farrington, 2006). 또한 가해자들이 훨씬 뛰어난 인지적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해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한다는 연구결과(Sutton, Smith, & Swettenham, 1999)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능력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 중 적대적 귀인편향

은 남녀 청소년 모두의 가해행동을 설명하였다. 이는 공격적인 청소년들이 사회적 자극의 내재된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보다 적대적인 사회적 신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Guerin과 Hennessy(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여학생 집단의 경우, 적대적 귀인편향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또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지속적으로 또래괴롭힘에 노출됨에 의해 적대적 귀인편향을 더 많이 갖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적대적 귀인편향이 여학생들로 하여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격성을 더 많이 드러내게 하고, 이러한 공격성이 또래들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또래괴롭힘을 당하도록 만드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내적 귀인성향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부정적으로 상관이 있었다는 연구결과(최윤자, 김아영, 2003)에 기초하여 다른 변인들과 함께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긍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성향이 높을수록 남학생들의 피해경험이 감소하였던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가해행동이 감소하였다. 남학생들의 경우 긍정적인 사건을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등 내적인 원인으로 귀인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이나 대처능력을 높이면서 또래괴롭힘에 대한 취약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긍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이 적을수록 가해행동이 증가하는데, 자기수용이나 자존감의 결여가 공격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남학생 집단의 경우에서만,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성향이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중복집단을 유의하게 구분하였다. 즉, 긍정적 사건에 대해 내적으로 귀인하는 것은 가해집단의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성향이 많은 것은 가해집단이 아니라 가해·피해 중복집단의 특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긍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이 남학생들의 피해경험 감소를 설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나르시시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처럼(예, Goldberg et al., 2007) 지나친 자기효능감이나 주장성 등을 매개로 가해행동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 변인이 가해·피해보다는 가해집단의 특성이라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은 청소년들을 위축되게 하며, 이러한 위축성향이 남녀 모두에게서 피해경험의 설명요인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이 남학생들의 경우 가해보다는 가해·피해 중복집단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함께 또래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을 설명하고, 집단을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거부적이며 제재적인 양육행동은 남녀 집단 모두에서 가해행동뿐 아니라, 피해경험 또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여전히 가부장제의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에 비해 훨씬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지닌 아버지(Chao & Tseng, 2002)의 거부·제재적인 태도는 전체적인 부정적 가족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자녀의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이나 피해경험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머니의 방임은 남학생의 가해행동을, 아버지의 방임은 여학생의 가해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나치게 허용적일 경우 자녀들이 자기중심적이며,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공격적이며, 약물사용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Steinberg, Blatt-Eisengart, & Cauffman, 2006)와 유사하다. 흥미로운 것은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또래괴롭힘 가해에 대한 설명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인데, 남녀 청소년들

의 행동은 동성부모보다는 이성부모와의 관계나 그들의 양육행동에 의해 더 강하게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 이는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남학생이 어머니가 애정적일 때 방관자의 역할을 유의하게 덜 하는 반면, 여학생은 아버지의 감독이 높은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어자 역할을 가장 많이 한다는 심희옥(2008)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또래괴롭힘 연구에서 아동과 부모 모두의 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 어머니의 온정적, 수용적 태도는 여학생들의 경우에서만 피해경험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이 또래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이숙, 이춘아, 1998), 일반적으로 자녀의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적응과 상관이 있다(Haskett, & Willoughby, 2006)는 것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전 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집단 괴롭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어머니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은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횡단연구의 특성상 인과관계는 밝힐 수 없다. 그러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은 남학생의 피해경험을 설명하지는 않았으며, 이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적응 사이에 자녀의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 중 유일하게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만이 여학생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중복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하였다. 어머니의 온정적,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가해집단보다는 중복집단의 특징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위에서 논의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로 볼 때 쉽게 설명가능하다.

이상에서, 중학생들의 경우 또래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을 설명하는 변인들에서 남녀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가해와 가해·피해 중복집단, 피해와 중복집단 간을 구분하는 변인들에서도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또래괴롭힘 가해나 피해를 설명하는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 부모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특성 분노와 분노표현이 각각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해와 피해를 다르게 설명하였고, 내적 귀인성향 역시 성별에 따라 다르게 가해 또는 피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또래괴롭힘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 시에 청소년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 부모 양육행동 모두를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성별에 따라 개입 방식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성별 뿐 아니라, 이와 상호작용하는 부모의 성별을 고려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을 설명하는 변인이 남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방임이었던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방임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성별을 막론하고 가해와 피해를 모두 강하게 설명했으며, 아버지 양육행동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 중에는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들이 41.2%로 매우 많았으며, 이러한 중복경험집단은 가해행동만 하거나 피해경험만 있는 집단과 일부 변수들의 측면에서 변별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행동들이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며, 많은 학생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둘 모두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보고에만 의존하여 모든 변인들을 측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원 도구의 기준점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자기보고에만 근거하여 또래괴

롭힘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공감의 측정(Lovett & Sheffield, 2007) 역시, 자기보고식 척도의 사용은 비일관적 연구결과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부모나 교사, 또래의 행동평정이나 보고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시점에서 가해·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집단의 경우, 횡단연구의 특성 상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등 집단 내 다양성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또래괴롭힘 현상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종단연구는 필수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로분석이나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을 성별에 따라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 중복집단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어떤 집단은 사례수가 매우 적었다. 예를 들어, 남학생 피해집단과 가해·피해 중복집단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남학생 피해집단은 사례수가 8명으로 매우 적었다는 점에 의해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분류 집단 별로 충분한 사례수를 바탕으로 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1999). 학교 폭력 및 왕따 예방 프로그램 (I):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105-122.
- 김문정(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

- 사학위 청구논문.
- 김소명, 현명호(2004). 가정폭력이 집단 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사회인지와 정서조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1), 17-32.
- 김영숙(1988).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리, 이숙희(2005). 인기 있는 아동은 마음읽기를 잘 하나?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1-18.
- 김혜원, 이해경(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김희화(2001).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8(2), 119-142.
- 노경선, 심희옥(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괴롭힘 경험. 아동학회지, 25(6), 241-257.
-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2002).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K-CAT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55-963.
- 민영숙, 박원모, 천성문, 이영순(2007).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불안, 공격성 및 또래관계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23(2), 115-140.
- 박민정, 최보가(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95-104.
- 박보경, 한세영, 최미경, 도현심(2004). 또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모의 부부갈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45-54.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연, 이은희(2008). 청소년의 불안정 애착과 문제 행동: 공감능력의 조절역할.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0(2), 369-389.
- 손주영(2007).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분노표현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기중(1998). 아동의 공감 수준과 도덕 추론 능력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희옥(2008). 포스터 논문 발표 : 부모 양육행동과 또래괴롭힘에 관한 횡단 및 단기종단연구: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 아동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 p. 123. 11월 1일. 서울: 동덕여자대학교 동인관.
- 이영아, 정원철(2007). 연구논문: 부모위험요인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이르는 발달경로. 청소년학연구, 14(3), 29-52.
- 안재진, 이경남(2002).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9-20.
- 양혜영, 김혜리, 김경미, 구재선, 정명숙, 박은혜(2008). 초등학생의 마음이론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1), 31-47.
- 연진영(1988). 아동의 공감발달 및 관련변인. 한국 아동학회지, 9(2), 29-59.
- 원지영(1998).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성우, 이영호(2007). 집단 따돌림 방관자에 대한 또래지지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271-292.

- 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2001).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4-162.
- 이숙, 이춘아(1998).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67-77.
- 이영선, 이경남(2004).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이 또래 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13(5), 659-672.
- 이은주(2003). 아동의 공격성, 또래 관계 및 집단 괴롭힘의 안정성. *초등교육연구*, 16(2), 283-300.
- 이점숙, 유안진(1999).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3), 107-121.
- 이혜경, 김혜원(2001). 초등학생의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2), 117-138.
- 이춘재, 광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임영실(2004). 청소년의 긍정적 자가지각과 주관적 안녕감 및 귀인성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덕희(2007). 청소년 학교폭력의 중복특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6), 69-97.
- 전경구(1996).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연구(II). *재활심리연구*, 3(1), 53-69.
- 조성호(2000).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화: 통합적 접근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47-67.
- 최윤자, 김아영(2003). 집단따돌림 행동과 자아개념 및 귀인성향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1), 149-166.
- Achenbach, T. (1978). The child behavior profiles : 1. Boys aged 6 through 11.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6, 478-488.
-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M. (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7, 765-786.
- Boyer, W.(2008). Girl-to-Girl violence: The Voice of the Victims. *Childhood Education*, 84, 344-350.
- Bosworth, K., Espelage, D. L., & Simon, T. R. (1999).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 341-362.
-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Burgess, K. B., Wojslawowicz, J. C., Rubin, K. H., Rose-Kransnor, L., & Booth-LaForce, C. (2006).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coping strategies of shy/withdrawn and aggressive children: Does friendship matter? *Child Development*, 77, 371-383.
- Casas, J. F., Weigel, S. M., Crick, N. R., Ostrov, J. M., Woods, K. E., Yeh, E. A. J., & Huddleston-Casas, C. A. (2006). Early parenting and children's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the preschool and

- home contexts.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09-227.
- Castro, B. O., Veerman, J. W., Bosch, J. D., & Monshouwer, H. J.(2002). Hostile attribution of intent and aggressive behavior: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73*(3), 916-934.
- Chao, R., & Tseng, V. (2002). Parenting of Asians. In M. H. Bornstein(Ed.), *The handbook of parenting* (pp. 59-93).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leary, S. D. (2000). Adolescent victimization and associated suicidal and violent behaviors. *Adolescence, 35*, 671-682.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Dodge, K. A. (2006). Translational Science in action: Hostile attributional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18*, 791-814
- Eisenbraun, K. D. (2007). Violence in schools: Prevalence, prediction, and prevent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 459-469.
- Erath, S. A., Flanagan, K. S., & Bierman, K. L. (2007). Social anxiety and peer relations in early adolescence: Behavioral and cognitive fac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405-416.
- Espelage, D. L., & Swearer, S. M. (2003). Research on school bullying and victimization: What have we learned and where do we go from here? *School Psychology Review, 32*, 365-383.
- Fekkes, M., Pijpers, F. I. M., & Verloove-Vanhorick, S. P. (2005). Bullying: Who does what, when and where? Involvement of children, teachers and parents in bullying behavior. *Health Education Research, 20*, 81-91.
- Flannery, D. J., Wester, K. L., & Singer, M. I.(2004). Impact of exposure to violence in school 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behavior.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 559-573.
- Goldberg, B. R., Serper, M. R., Sheets, M., Beech, D., Dill, C., & Duffy., K. G. (2007). Predictors of aggression on the psychiatric inpatient service: Self-esteem, narcissism, and theory of mind deficit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5*(5), 436-442.
- Gomez R., & Gomez A. (2000). Perceived maternal control and support as predictors of hostile-biased attribution of intent and response selection in aggressive boys. *Aggressive Behavior, 26*, 155-168.
- Gonzales, K. P., Field, T. M., Lasko, D., LaGreca, A., & Lahey, B. (1996). Social anxiety and aggression in behaviorally disordered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21*, 1-8.
- Guerin, S., & Hennessy, E. (2002). *Aggression and Bullying*. Oxford, UK: Malden, MA:

- BPS Blackwell.
- Haskett, M. E., & Willoughby, M. (2006). Paths to child social adjustment: parenting quality and children's 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Child :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3*, 67-77.
- Haynie, D. L., Nansel, T., Eitel, P., Crump, A. D., Saylor, K., Yu, K., & Simons-Morton, B. (2001).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Distinct groups of at-risk youth.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 29-49.
-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06).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empathy and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32*, 540-550.
- Kaplan, P. J., & Arbuthnot, J. (1985). Affective empathy and cognitive role-taking in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youth. *Adolescence, 20*, 323-333.
-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Peer victimization: Cause or consequence of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305-1317.
- Lee, V., & Hoaken, P. N. S. (2007). Cognition, emotion, and neurobiological development: Mediating the relation between maltreatment and aggression. *Child Maltreatment, 12*, 281-298.
- Loeber, R., & Dishion, T. J. (1983). Early predictors of male delinquenc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4*, 68-99.
- Lovett, B. J., & Sheffield, R. A. (2007). Affective empathy deficits in aggressive children and adolescents: A crit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 1-13.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411-447). Hillsdale, NJ, Englan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Pellegrini, A. D., Bartini, M., & Brooks, F. (1999). School bullies, victims, and aggressive victims: Factors relating to group affiliation and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 216-224.
- Quay, H. C. (1972). Patterns of aggression, withdrawal, and immaturity. In H. C. Quay, & J. S. Werry(Ed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 Oxford, England: John Wiley & Sons.
- Rubin, K. H., LeMare, L. J., & Lollis, S. (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Developmental pathways to peer rejection. In S. F.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217-24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niering C. A., & Rapee R. M.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the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1091-1109.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 665-675.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2000). Friendship as a moderating factor in the pathway between early harsh home environment and later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6*, 646-662.
- Spielberger, C. D. (1988).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Orlando,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teinberg, L., Blatt-Eisengart, I., & Cauffman, E. (2006).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indulgent, and neglectful homes: A replication of a sample of serious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 47-58.
- Sutton, J., Smith, P. K., & Swettenham, J. (1999). Social cognition and bullying: Social inadequacy or skilled manipulat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 435-450.
- Trembly, R. E., Hartup W. W., Archer J. (2005). *Developmental origins of agg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Underwood, M. K. (2003). *Social aggression among girls*. New York: Guilford Press.
- Weinstein, N. D. (1980).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06-820.
- Wilkowski, B. M., Robinson, M. D. (2008). The cognitive basis of trait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An integrative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2*, 3-21.

1차 원고 접수: 2009. 04. 04.

수정 원고 접수: 2009 05. 12.

최종게재결정: 2009. 05. 13.

Understanding peer victimization in boys and girls: Adolescents' emotional, 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behaviors

Keng-Hie Song Ju-Hyun Song Ji-Hyun Baik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In a group of 696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Kyung-gi areas,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emotional characteristics (anger, withdrawal, empathy), cognitive characteristics (hostile attribution bias, internal attribution), and parenting behaviors (mothers' and fathers' warmth-acceptance, rejection-restriction, permissiveness-neglect) as predictors of bullying behaviors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each gender. Results indicated different sets of cognitive, emotional, and parenting variables explained bullying behaviors and experiences of being bullied in each gender. Some of the variables contributed to both bullying behaviors and experiences of being bullied. Next, this study identified variables that distinguished bullies or victims from bully/victims in each gender. The role of empathy that distinguished bullies from bully/victims in a group of females needs to be replicated with follow-up stud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more gender-specific, integrated approaches for bullying prevention or intervention.

Keywords: peer victimization, emotional characteristics, cognitive characteristics, parenting behaviors, gender differences